
- 도시재생발굴단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2019. 1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

목 차

I. 출장개요	1
---------------	---

II. 도시재생발굴단 출장내용	4
------------------------	---

1. 스페인 바르셀로나	4
--------------------	---

2. 스페인 빌바오	9
------------------	---

3. 독일 베를린	14
-----------------	----

III. 도시재생발굴단 내 복구의회 출장 보고	21
---------------------------------	----

III. 복구의회 출장 내용 및 제언	22
----------------------------	----

IV. 개인별 보고서

1. 복구의회 의장 이주언	30
----------------------	----

2. 복구의회 부의장 백현조	35
-----------------------	----

3.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41
---------------------	----

4. 의회사무과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김규신	44
-------------------------------	----

- 도시재생발굴단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등 구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사례지역과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적용 가능한 사례 및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함.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 유럽 도시의 도시재생은 도심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 및 물리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커뮤니티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 도시재생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방법은 공장지역 재개발, 유휴지 개발, 이주, 공공 공간 향상, 타운센터 관리계획 등이 있음
- ▶ 실효성 있고 지역 경제의 자족성이 달성될 수 있으며 도시재생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이에, 공장지역, 빈민가, 낙후지역 등 쇠락하고 방치된 공간 또는 지역을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해외 우수사례지역 견학을 통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더불어 울산 북구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마련하고자 추진함
- ▶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춰 발전하는 도시재생사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살피고 정책적 시사점을 확보하고자 함.
-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역공동체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생적이고 협력형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 시설 등에 대해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역사, 문화 및 예술 등 다양한 테마를 접목시켜 개발한 지역을 탐방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고 전문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참여자 : 11명

▶ 팀 명 : 도시재생발굴단

구분	부 서	직 렬	직 급	성 명	성 별	여 행 중 담 당업무
팀장	도 시 과	도시과장	지 방 시 설 사 무 관	홍승진	남	사전계획서 작성, 코스선정 등
팀원	구청장실	구 청 장	자치구청장	이동권	남	기관방문 및 대표자 면담 등 총괄
팀원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 장	지 방 기 술 서 기 관	김연식	남	사전계획서 작성, 코스선정 등
총무	도 시 과	도시경관 담 당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강지희	여	사전계획서, 귀국보고서 작성, 경비지출, 기관 섭외
팀원	구청장실	비 서	지방별정직 7 급 상 당	정재철	남	사진촬영, 자료수집 등
팀원	도 시 과	주 무 관	지 방 시 설 서 기 보	최동현	남	방문기관 사전조사, 사진촬영, 자료수집 등
팀원	도 시 과	주 무 관	지 방 시 설 서 기 보	석현영	남	방문기관 사전조사, 사진촬영, 자료수집 등
팀원	북구의회	구 의 원	의 장	이주언	남	구정접목 및 시사점 검토
팀원	북구의회	구 의 원	부 의 장	백현조	남	구정접목 및 시사점 검토
팀원	북구의회	의회사무 과 장	과 장	허사영	남	사진촬영, 자료수집 등
팀원	북구의회	주 무 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김규신	남	사진촬영, 자료수집 등

3. 출장 기간 및 지역

- ▶ 출장기간 : 2019. 10. 30. (수) ~ 11. 8. (금) 8박 10일
- ▶ 출장지역 :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독일(베를린)
- ▶ 방문기관 : 바르셀로나(Co-Working), 빌바오(빌바오리아 2000), 베를린(스타트업에코시스템, 우파파브릭)

4. 출장장소 및 세부일정

일 자	도 시	방문장소 (기관)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일 10/30 (수) (04:00-22:00)	울산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 → 인천 → 바르셀로나 이동 	
제2일 10/31 (목) (09:30-22:00)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보른지구 포블레노우 Co-Wor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딕지구와 보른지구 내 도시재생 및 가로경관 견학 바르셀로나 대표적 산업단지재생 사례인 포블레노우 지역 견학 및 관련 기관 방문 	
제3일 11/01 (금) (09:30-22:30)	바르셀로나	구엘공원 에이샴플라지구 몬주익언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가우디의 건축물과 주변 경관 등 견학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점이 되는 몬주익 언덕 일원 견학 	
제4일 11/02 (토) (09:30-20:00)	바르셀로나 빌바오	고딕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시청사, 민원실, 의회 등 시찰 바르셀로나 → 빌바오 이동 	
제5일 11/03 (일) (09:30-22:00)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구시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겐하임을 중심으로 네르비온강 주변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견학 구시가지 도시경관 형성 사례 견학 	
제6일 11/04 (월) (09:30-21:00)	빌바오 베를린	빌바오리아 2000 아반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빌바오 도시재생 참여기관 방문 옛 양조장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아즈쿠나 문화센터 견학 빌바오 → 베를린 이동 	
제7일 11/05 (화) (09:30-21:30)	베를린	에코시스템 티어가르텐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관련 기관 방문 전승기념탑을 시작으로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티어가르텐 및 중앙도로 일원 견학 	
제8일 11/06 (수) (09:30-21:00)	베를린	포츠다머플라츠광 장 크로이츠베르크 우파파브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츠다머플라츠와 크로이츠베르크 일원 베를린장벽 및 기념관 등 견학 베를린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기관 방문 	
제9일 11/07 (목) (09:30-21:30)	베를린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를린 → 인천 이동 	
제10일 11/08 (금) (09:15-13:50)	인천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 울산 이동 	

II 도시재생발굴단 출장내용

1. 스페인 바르셀로나

1. 1. 기관방문 : Co-Working 관련

- 일 시 : 2019. 10. 31. (목) 12:00 ~ 14:00
- 장 소 : BCNewt, Valkiria
- 목 적 : Co-Working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 주요내용

- 소속과 직업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간을 넘어 지식과 노하우의 공유까지 이루어지는 곳을 뜻함
- 코워킹은 지식정보 시대에 어울리는 업무형태로,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협업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BCNewt, Valkiria는 포블레노우 22@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 코워킹 스페이스로 여러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 코워킹 스페이스가 기존의 working space와 다르게 적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식정보 시대에 어울리는 업무형태로,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협업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인근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수자들 중 실제 창업을 위해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음
- 기관 내부 hall을 회사, 대학, 재단 등에 공간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이 주요 수입원이며 부수적으로 1층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 이러한 기관도 주변에 동종 기관이 많아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추후 더 많은 동종기관이 생겨나면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BCNewt	Valkiria
	
	
	
	
	

1. 2. 주요 견학지

- ▶ 방문지역 : 고딕지구, 보른지구, 에이샴플라지구, 포블레노우, 몬주의 언덕 등
 - 바르셀로나는 시가지 재생 특별계획을 1985년에 수립한 이후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함께 NPO, 민간기업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2004년 세계문화포럼을 개최하면서 인프라 정비와 도시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고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바르셀로나의 이미지는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05년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물에 대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많은 주목을 받음
 - 포블레노우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은 지식집약형 첨단산업 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22@Barcellona 프로젝트에 의해 탈공업화 진행 및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 효과를 거둠
 -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하고 이것이 주변 환경 및 경관에도 작용되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을 확인함
 -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거리가 조성되어있고 혼자가 아닌 함께 공생하여 유기적으로 엮어져 도시가 형성되었음.
 -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은 침체화가 가속된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지역 정체성과 연관된 중요한 아이템이라 사료됨
 -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그 도시의 경관개선 효과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계되어 문화재 보호 정책으로 인한 개발 제약 및 사유 재산 침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은 건축물과 역사문화 등의 관광자원을 기존 관광 인프라와 잘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고딕지구 내 베를린성당과 피카소 작품이 외벽으로 치장된 건축물



까탈루냐 주정부 청사와 바르셀로나 시청



람브라스거리와 거리예술



보케리아시장



보른지구 내 조형물과 안내관



포블레노우지역 내 트램 선로와 대학



포블레노우지역 내 도로와 이면도로



카사바트요와 카사밀라



몬주익언덕과 언덕에서 바라본 해안경관



입면경관개선을 위한 화분설치 발코니와 기능이 통합된 가로시설물

2. 스페인 빌바오

2. 1. 기관방문 : 빌바오 리아 2000

- 일 시 : 2019. 10. 4. (월) 10:00 ~ 12:00
- 장 소 : 빌바오 리아 2000
- 목 적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 재원확보 및 애로사항 등

▶ 주요내용

- 빌바오는 도시재생은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조를 위해 건축가 노만 포스터에게 주요 사업의 설계를 맡기고 기본계획은 메트로폴리 30에서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개발주체로 빌바오 리아 2000이 관여함
- 공적으로 후원되는 비영리 파트너십으로 민간부문 기업처럼 운영되며 정부의 모든 관련기관의 장이 모여 회의를 통해 주요의사를 결정하며 실행력도 빠름
- 기관의 수익은 토지를 개발한 후 그 지분이나 사용권을 민간에 양도를 통해 창출하고 그 수익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국공유지를 민간사업장에게 주거지, 상업지로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건축시 녹지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하여 녹지를 확보하고 있음
- 당초 한시적 기관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 기관의 영구 존치로 변경되었음
- 재생사업 추진시 주민의 반발이 적었던 이유는 도시 자체의 경제 불황 및 인구가 급감하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 외항을 확장하여 시내에 있던 부두를 전부 외항 쪽으로 이전시키고 네르비온강 정화사업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
-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과거 항구와 산업 및 노후 교통시설 폐부지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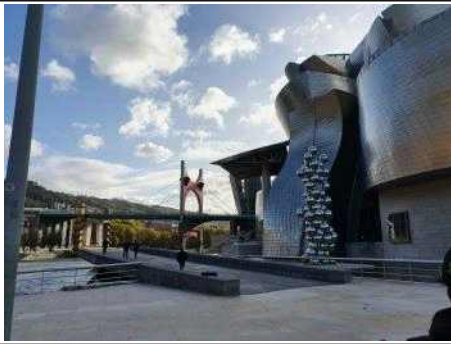
전면 재개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주변 위성도시로 확대되었음

- 빌바오는 관광으로 유명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업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테크놀로지, 신소재, 로봇공학 등 관련 R&D 시설을 집적시켜 준비하고 있음



2. 2. 주요 견학지

- ▶ 방문지역 : 구겐하임 미술관, 네르비온강 일원, 구시가지, 아반도지구 등
 - 빌바오시는 스페인에서 철강도시로 대표되는 산업도시였으나 철강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지역을 재생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 새로운 도시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됨
 - 그 중 대표적 사업이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이며 이를 통해 문화산업에 의한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관광 등으로 고용창출을 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네르비온강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강에 밀집해 있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구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다리를 건설한 것을 꼽을 수 있음
 - 네르비온강의 수질 개선과 외항 확장을 통해 기존 산업시설이 이전하였지만 그 당시 사용된 산업자원을 존치하여 흥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것도 특징임
 - 다른 도시 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참여가 많은 지역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건축물 디자인 공모는 세계설계경기대회로 진행을 하고 집행부에서 세계에게 유명한 건축가 10명을 지정하고 참가 건축가와 지역의 건축가가 공동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였으며 초기 유명 건축가의 참여가 다른 유명건축가 참여의 계기가 되었음
 - 지역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시에서 지역 대표 자산(장미, 배, 비둘기 등)을 모티브로 주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개략적 디자인을 제안하고 설치하도록 하였음
 - 공공 공간 및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보도 장애물 제거, 횡단보도를 구원식 또는 전면 경사로로 설계하고 미끄럼 방지 문양 삽입, 보도블럭과 조화된 맨홀 등 디테일하게 신경 쓴 것이 도시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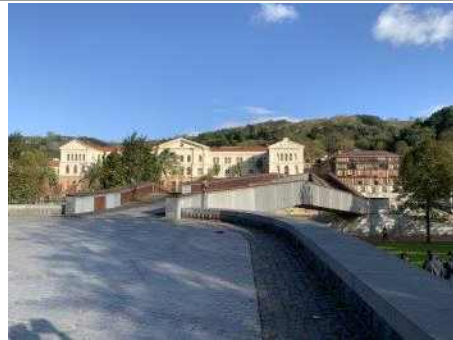
구겐하임미술관과 살베다리



구겐하임미술관과 네르비온강 수변에 설치된 조형물



구겐하임미술관 조형물과 살베다리



네르비온강 주변 시가지 경관



네르비온강 주변 수변경관



비즈카야대교 전경



빌바오 구시가지 가로경관과 오페라하우스



주비주리다리 주경과 야경



트램정거장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EV

가로경관과 공유자전거 스테이션



양조장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센터로 개조한 아즈쿠나 젤토라

3. 독일 베를린

3. 1. 기관방문 : 에코시스템

- 일 시 : 2019. 11. 5. (목) 10:00 ~ 12:00
- 장 소 : 지멘스(SIEMENS) 내 인큐베이터 에코시스템
- 목 적 :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시설 구성 등

▶ 주요내용

- 지멘스는 독일의 대표적 기업이기도 하지만 베를린 스타트업 분야 지원 전문 기업이기도 함
-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 기관과 지멘스 회사 프로젝트를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지멘스 내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초기 창업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단계별 프로그램과 지원 방식이 다르며 이곳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자 할 경우 간략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베를린이 스타트업 하기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거의 없고 도시의 물가가 샌프란시스코 등 타 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인 점도 있음
- 베를린시와 독일 그리고 EU차원에서 다양하게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독일재건은행(KfW)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창업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창업자 플랫폼은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비즈니스모델, 사업계획 개발은 물론 구체적인 자금 조달, 세금 등 창업 관련 전반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 베를린 투자은행(IBB)에서도 스타트업 지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지원, 기술자금지원, 인력운영지원 등 기본적인 금융지원에 더해 매월 다양한 주제들의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여 정보공유의 장(MEET-UP) 있음



3. 2. 기관방문 : 우파파브릭

- 일 시 : 2019. 11. 6. (목) 15:00 ~ 17:00
- 장 소 : 우파파브릭(ufafabrik)
- 목 적 : 지역공동체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등

▶ 주요내용

- 우파파브릭은 베를린 남쪽 기존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적 특성을 갖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영화의 본거지였던 장소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 지역 내 고립된 섬처럼 버려진 곳을 1979년 6월 생태적이며 대안적인 삶을 꿈꾸던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자 독일의 대표적 지역공동체 사례지역
- 2차 세계대전과 분단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표적인 복합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신을 중심으로 예술, 문화, 교육 등 복합적인 조직을 조합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음
- 핵심 주체를 살펴보면 12개의 단위조직과 사업체 30여명의 상시거주자와 160여명의 협력 직원 및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210개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베를린 시에서 2037년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시 감사도 받고 있음
-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길드를 형성하고 유기농 식품가게, 베이커리 등 수익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 역점사업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센터와 가족지원 서비스, 갈등 중재 등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타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축제 및 정기적 문화활동 등을 기획하는 것임
- 우파파브릭이 생태마을 공동체로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거주 공간을 태양열, 지열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천연 재료를 활용한 건축, 자연 발효 화장실, 수초를 이용한 폐수 정화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때문



3. 3. 주요 견학지

- ▶ 방문지역 : 티어가르텐, 박물관섬, 포츠다머플라츠, 크로이츠베르크 등
 - 독일의 도시재생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 및 EU가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도시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됨
 - 베를린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지역환경 및 개발정도가 상이한 동 베를린과 서베를린 지역의 재생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다가 최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독일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현재 사회적 재생, 물리적 재생, 도심활성화, 역사적 재생, 소규모 재생 5개의 프로그램이 있음
 - 2차 세계대전과 분단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축물을 잘 보존하였으며 필요에 의해 개발을 할 경우 그 흔적을 남겨 도시의 역사가 후대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음
 - 세계적 경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로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해 방문객 증가대비와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음
 - 베를린은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가로 교차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도를 따라 중앙에 녹지공간을 두고 벤치와 화단,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요 가로는 차도와 인도의 높이를 낮추고 차도에 자전거 통행로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음
 - 베를린 장벽을 따라서 역사적 장소 및 유적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단의 상징물인 찰리검문소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으로 변화되었음
 - 슈프레(Spre)강 삼각주지점에 위치한 박물관섬과 주변에 주요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또 다른 볼거리 제공



전승기념탑과 전승기념탑에서 본 티어가르텐 전경



국회의사당 앞 단체사진

히틀러에 의해 살해된 정치인 추모비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장벽터



브란덴부르크문

유대인 추모공원



베를린돔 주경과 야경



의사당 돔과 내부 모습



슈프레강 수변공원 미디어파사드

자동차테마 파크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주요 건축물 모형



포츠다머플라츠광장 및 주변 경관



베를린장벽 전시관

Ⅲ 도시재생발굴단 내 복구의회 출장 보고

- 세월의 흐름 속에 낙후한 도심을 대상으로 새로운 각종 기능을 도입시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항만재개발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구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든 상황임
- 우리 구는 앞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음. 국비를 지원 받아 '천년의 삶과 하천을 품은 걷고 싶은 내 고장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 이를 통해 이화, 화정마을의 재생을 지원 받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받고 있음
- 이와 함께 염포양정에서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화봉동에서 '화봉 꿈마루길' 조성사업을 펼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복구의회 이주언 의장과 백현조 부의장, 의회사무과 허사영 과장, 김규신 주무관 등 4명이 이동권 구청장과 김연식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우리 구 도시재생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 재생 선진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와 빌바오, 독일 베를린 일원을 8박10일간 방문
- 출장을 통해 이곳 선진지의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사업과 청년창업 현황 및 협업,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 등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우리 구 발전에 적극 활용하기로 함

Ⅳ 복구의회 출장 내용 및 제언

○ ‘선진 도시 재생’ 벤치마킹 숙제로 장도에 오르다

세월의 흐름 속에 낙후한 도심을 대상으로 새로운 각종 기능을 도입시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음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항만재개발 등 도시 재생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각지에서 추진 중인 것임

우리 구 역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음

국비를 지원 받아 ‘천년의 삶과 하천을 품은 걷고 싶은 내 고장’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이화, 화정마을의 재생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이주언 의장, 백현조 부의장, 허사영 의회사무과장과 이동권 구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우리 구 도시재생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 재생의 선진지라 할 수 있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와 빌바오, 독일 베를린 일원을 방문해 10일 동안 더 나은 도시재생 방안을 찾았음

○ 과거가 현재에게 주는 선물, 바로셀로나 건축물

긴 비행 끝에 도달한 바로셀로나, 숙소로 향하는 버스 창 밖으로 시가지 곳곳에 잘 보존돼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는 곳곳의 건물 야경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음

날이 밝은 뒤 찾은 바로셀로나의 중심부 고딕지구에서는 대성당과 피카소

미술관 등 대표적인 건물은 물론, 과거 로마시대 때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로마인들이 조성한 골목 곳곳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세계인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과거의 고전 건물 하나하나가 현재의 관광자원이 돼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도시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임

넓고 길게 뻗은, 과거 피카소가 자주 거닐던 가로수길 ‘람브라스 거리’는 13세기부터 19세기의 중세건물이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고, 거리 곳곳에 위치한 노천 레스토랑, 기념품 상점 등은 이 길을 걷는 재미를 한층 더하는데 일조하고 있었음

유럽 최대 규모의 시장 중 하나라는 라보케리아 시장은 우리의 전통시장과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크진 않았지만, 바르셀로나와 람브라스 거리를 찾은 방문자들에게 보는 즐거움에다,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음

또한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손길로 신축 또는 재건축된 구엘공원 카사바트요, 카사밀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은 하나의 예술품으로 평가받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꼽히며 오늘날 바르셀로나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로 이름 나 있으며 이는 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도시재생, 노후 산단 숨통을 트다

과거 1960년대까지 방직공장이 밀집해 방직 및 표백산업으로 부흥기를 보낸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해 1963년부터 1990년까지 1천300개나 되던 공장이 타 지역 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쇠퇴가 가속화했음

이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이곳 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항구 및 공항을 연계시키는 중심지역으로 바르셀로나의 비즈니스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기업 신사옥을 유치하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했는데, 이들 기업이 지은 신사옥은 지역 명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광 수요를 부르고 있음

특히 가우디에게 영감을 받아 건설해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는 지상 35층 규모 바르셀로나 수도국 건물 아그바타워는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타워로서 이곳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로 인기를 끌고 있었음

이밖에 기존의 방직산업 굴뚝과 공장들에도 디자인 색채를 입혀 재활용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색다른 건축물로 각광받고 있음

○ 싱싱한 아이디어 공유로 혁신을 꿈꾸다

포블레노우 지역은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지역으로 변모한 곳이며, 이곳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획기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이는 이 지역에서 활성화 중인 창업 플랫폼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이번 출장에서 창업플랫폼 중 하나인 BCNewt Co-working과 Valkiria 두 곳을 방문,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함

코워킹 스페이스는 소속과 직업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간을 함께 쓰면서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이를 통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곳을 말하는데 방문 당시에도 공간 곳곳에서 협업을 위해 치열하게 아이

디어를 공유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우리 구의 경우 문화예술 공용 공간인 북구예술창작소와 감성경도가 조성됐거나 조성을 진행 중인데, 이는 문화에 한정된 것이어서 민이나 관에서 창업 분야의 아이디어 공유 및 협업 공간을 활발히 조성해 전국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면 지역 창업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철강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 빌바오의 재탄생

철강도시의 대명사였던 빌바오는 1980년대 경제 불황에 따른 타격으로 실업률이 25%까지 치솟는 등 도시가 크게 흔들려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함

하지만, 세계적인 명성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고, 강 주변 경관 개선에도 나서면서 오늘날 문화도시로 완전히 재생했음

이곳의 도시재생 사업 기관 ‘빌바오리아 2000’을 찾아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문화 콘텐츠를 도입했다는 내용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빌바오 지역 대응 방안을 세세하게 안내했음

특히 이곳 빌바오에는 세계적인 미술재단인 구겐하임이 1991년 설계해, 1997년 완공한 구겐하임 미술관이 빌바오 도심을 흐르는 내리비온 강변에 위치해 아름다운 외관으로 스페인과 바스크 지방을 찾은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실제 구겐하임 미술관 안팎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아름다운 강변과 쾌적한 대기를 배경으로 조깅을 하거나 걸음을 걷는 사람이 도시의 평화로움을 더했고, 간간히 다니는 트램도 매연이나 소음 없이 이 풍경의 일원으로 한 몫을 하고 있었음

우리 구도 매곡천 등 하천변의 경관 개선과 관련해 타 지역과 차별화한, 오직 우리 구를 찾아야만 느낄 수 있는 문화 색채를 입힌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통해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냉전의 상징, 철거 대신 역사의 산물로 보존

베를린은 전승기념탑, 브란덴부르크문, 국회의사당 등 하나 같이 풍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웅장한 옛 건축물을 다수 갖추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만으로도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곳이 있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간직해 관광 포인트로 활용하는 점도 눈에 띄었음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국과 소련의 탱크가 대치한 지점인 '체크포인트찰리'와 분단의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 등 아픔의 상징물들이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채 보존돼 지금은 관광 명소로 거듭난 것을 직접 확인

베를린장벽의 경우 현재 관광명소로서의 역할 외에도 장벽 조각, 조각들이 기념품으로 팔리는 것도 이색적이었음

워낙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장벽이기에 가능한 사업이겠으나, 우리 구 역시 고대 동북아 철기문화 중심인 쇄부리터를 보유한 지역인 만큼 철을 테마로 한 기념품 제작과 판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동수단 공유, 미래를 대비해야

스페인과 독일의 거리를 대중교통과 도보로 구석구석 확보하면서 매일같이

이 눈에 들어온 것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이동수단이었음

유럽 전역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유 스쿠터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거리를 누비고 있으며 1인용 전동킥보드도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음

바르셀로나의 경우 시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바이싱’이라고 하는 빨간색 공유자전거와 자전거 보관소가 도보 이동 중 곳곳에서 눈에 띄었음

적극적으로 자전거 친화정책을 펼치는 베를린에서도 수천대의 공유자전거가 주민 곳곳에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전동 킥보드 역시 어떤 곳을 가던 거리 곳곳에 주차되고, 다시 이동에 활용되는 등 이런 교통수단들이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로 진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음.

우리 시와 구에서도 9월부터 카카오택시라는 공유자전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초기임에도 활용도가 적지 않으며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도 있음

우리 구의 경우 구청과 울산공항 인근, 송정지구 등에 한정돼 서비스가 되면서 지역 전역으로의 이동은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임

특히 미래에 공유경제가 발달하면 자동차 대수가 감소하는 대신 자전거와 킥보드와 같은 대체 이동수단을 대거 활용할 수 있기에 앞을 내다보고 도로와 인도 폭 조정을 염두에 뒀야 하고,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동해남부선 폐선을 활용 방안으로 보행로와 자전거, 킥보드 특화 이동로를 확보한다면 이동 수요를 넘어 관광 수요까지 불러들일 수 있을 것임

빠르기만한 자동차가 아니라 비교적 느리게 이동하며 지역 곳곳을 속속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이동 수단과 발걸음이 이어진다는 것은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독일 대표기업이자 스타트업 지원 전문 기업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독일의 지멘스 내에는 인큐베이터 에코시스템이라는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음

이곳은 독일인은 물론, 외국인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함께 입주한 기관별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특히 베를린 투자은행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과 정보 공유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원하격 중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인 점에서 눈길이 갔고, 우리 구에서도 현대자동차나 새로이 이화산단이 들어설 현대 모비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와 같은 창업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기업의 사회 공헌 책무를 다하고, 창업 역량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생태공동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예술가 공동체

베를린 남쪽 시내 중심가에는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마을인 '우파파브릭'이 있음

대안공동체, 생태마을, 친환경에너지, 대안학교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곳은 학교 외에도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국제문화센터 극장, 공연장, 그리고 유기농 빵집 및 식료품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12개 단위조직과 사업체로 구성돼 있음

30여명의 상시거주자와 160여명의 협력자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0개의 일자리를 제공 중임

우파파브릭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유니베르쥔영화사의 촬영소로 활용되면서 독일영화의 1번지 역할을 했으나 2차 대전 후 냉전체제 구축으로 서베를린의 우파파브릭과 현상소로 사용되던 동베를린이 나뉘지면서 문을 닫고 30년 가까이 버려졌다가 1979년 6월 창립

직접 찾아 눈으로 확인한 이곳은 도심 속에 위치한 한적한 친환경 마을 공동체였음

풍력 발전기 등이 마을 곳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밖에도 태양열 발전과 자연 발효 화장실, 수초 활용 폐수 정화시스템, 옥상정원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함

도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친환경 생태공동체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정치인, 기업인, 대학의 교수와 학생, 청소년 등 연간 20~30만명이 이곳을 다녀간다고 하니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베를린 속 생태 관광지로 꼽힐 만 했음

II 북구의회 개인별 보고서

작성자	북구의회 의장 이주언
제 목	집행부와 도시재생관련 방안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
<p>1. 도시재생발굴단 참가 소감</p> <p>○ 북구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여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찾기 위한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벤치마킹이 마련되었습니다.</p> <p>○ 우리 북구에서는 이화·화정 지역 및 양정, 염포, 화봉동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이 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p> <p>○ 이에 우리 구정에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선진지에서의 견문을 우리 지역에 도입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출장에 임했습니다.</p> <p>○ 바르셀로나, 빌바오, 베를린에서 선진화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지역, 그리고 각지의 경관 조성 현황 등을 보다 세밀히 살펴기 위해 도보와 대중교통(버스·택시·지하철)을 활용해 벤치마킹했고, 이는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 도시들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을 통해 경관을 정비했고, 이는 곧 과거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어 세계적인 명소로 연결됐으며 전 세계인들이 이들 현지를 찾아 봐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p>	

○ 각 기관 방문을 통해서는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유 및 협업 사례는 물론, 도시 재생을 위한 역사와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국제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정비,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민관이 서로 협력을 도출해야 하는 연쇄적 과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성급한 사업진행 보다는 약간의 호흡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과정 속에 진행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부의 도시재생관련 등의 업무 진행 기획 의도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 거기에 더해 의회 차원에서의 사례 및 관리방안 등의 제언도 하면서 집행부의 목표설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 주요방문기관

가. BCNewt Co-working과 Valkiria

-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창업 플랫폼
-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각 실을 활용하거나 현대적인 철골 구조물에 공유 공간을 구성, 아이디어 교환
- 비슷한 플랫폼이 과다하게 많이 생김에 따라 우려도 받고 있음

나. 빌바오 리아 2000

- 중앙정부와 주정부, 유럽연합에서 초기 운영자금 출연
- 공적으로 후원되는 비영리 파트너십으로 민간 기업처럼 운영
-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공기업

다. 지멘스(SIEMENS) 내 인큐베이터 에코시스템

- 세계적인 독일 기업 지멘스가 지원하는 베를린의 스타트업 시스템
- 공공 사무 공간 및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
- 독일인 외에 외국인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

라. 우파파브릭(ufafabrik)

- 베를린 남쪽에 위치한 생태공동체 복합문화공간
- 12개 단위조직 및 사업체, 30여명의 상시거주자와 160여명의 협력자 직원 및 네트워크 조직해 일자리 210개 제공
- 도심 속 생태공동체 복합문화공간으로 연 20~30만 방문객 유치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한 '현안사업 관련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에 나선 도시재생발굴단이 독일제국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3. 시사점

○ 개발 대신 보존으로 흥하는 도시

바르셀로나는 중심부의 고딱지구는 물론, 도심 곳곳에 위치한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고 거리의 풍경과 경관을 개선해 어떤 곳을 걸더라도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피카소가 자주 거닐던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가로수길인 람브라스거리 역시 13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인접한 중세건물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의 산물인 구엘공원과 개성 만점의 건물 가사 바트요, 카사 밀라는 ‘가우디 투어’라는 여행 코스를 만들만큼 바르셀로나 관광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사후에도 계속 지어져 90년이 넘게 공사를 진행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는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낡은 것은 일단 허물고 재건축과 신축에 집중하는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옛것을 아끼고 보존, 계승해 이를 후손에게 전하고 있으며 이는 후대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된 건물이라고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 원판을 보존하고 내부를 개선한 결과가 오늘날의 부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빌바오에는 1893년 개통한 케이블에 의해 운반되는 다리가 오늘날까지 보존돼 이동 편의는 물론, 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철 원석과 철제품 수출을 위한 선박의 잣은 이동으로 다리를 놓기 힘들던 이곳에는 1893년 높은 공중에 매달린 곤돌라를 이용해 운반

교를 강 양쪽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됐고, 스페인 내전 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면서 빌바오시의 상징적 경관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를린에는 전승기념탑, 브란덴부르크문, 국회의사당과 다수의 박물관 등 대단히 웅장한 건물들이 잘 보존돼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가장 크게 와 닿은 요소는 사방에 위치한 도시 숲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곳곳에 울창한 숲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그래서인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대기의 질이 나쁘지 않았으며, 푸르른 숲을 보면서 눈의 피로도도 씻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깊은 산으로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도심 숲에 큰 감명을 받았고, 우리 구에서도 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도심 숲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끝.

작성자	북구의회 부의장 백현조
제 목	디자인·공유경제·도시 숲
<p>○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독일 베를린, 도시재생 사례 발굴을 위해 향한 이들 도시에서 약 열흘간 체류하면서 우리 구 도시 재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돌아왔다.</p> <p>유럽 벤치마킹 체류 중 가장 흥미롭게 살펴봤던 부분이었던 도시경관 디자인, 공유경제, 마지막으로 환경 정책 및 선진 사례들을 위주로 이번 여정을 되짚어 기록해 본다.</p> <p>○ 출장지 개요</p> <p>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p> <p>기부금으로 짓고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가 1883년 재설계하고 이후에 40년간 성당 건축에 열정을 기울였으나 1926년 사망할 때까지 일부만 완성되었고 스페인의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1953년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p> <p>전체를 완성할 경우 성당의 규모가 가로150m, 세로60m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 돔의 높이는 170m에 달한다.</p> <p>건물은 3개의 파사드로 이루어지는데 ‘탄생의 파사드’만 가우디가 완성했고 ‘수난의 파사드’는 1954년에 착공, 1976년에 완공했다. ‘영광의 파사드’는 2002년이 되어서야 착공됐다. 3개의 파사드는 100m가 넘는 각각 4개씩 12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탑은 12사도를 의미한다.</p> <p>가우디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100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집중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p>	

2.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

몬주익 언덕은 해발 23m로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미라마르 전망대에서 바르셀로나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지하철과 몬주익 언덕을 잇는 케이블카인 푸니쿨라에서 바라보는 도시 경관은 아름다웠다. 몬주익성에서 내려다보는 바르셀로나 항구 풍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했고, 항구에 정박 중인 크루즈 선박은 한 폭의 그림에 가까웠다.

몬주익 언덕은 1984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땀던 곳으로서 친근한 느낌으로 와 닿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면서 황영조의 레이스 당시 힘들었을 모습들을 연상했다.

인생의 긴 여정이 마라톤이라는 말처럼 걸음, 걸음을 옮기면서 나의 꿈과 도전 등 많은 순간들을 되새기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었다.

3. 스페인 빌바오 시티

쇠퇴하는 도시가 재탄생 하는데 대해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빌바오시의 도시재생사례는 세계인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1980년대 철강·건설업이 내리막길을 걷기시작하면서 이곳에서는 휴폐업이 이어졌고 실업률이 20~30%까지 올라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빌바오를 떠났다.

하지만 빌바오시는 1990년대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강변의 수질 개선부터 시작해 30년간 1조7,000억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면서 ‘빌바오메트로폴리30’과 실행기구인 ‘빌바오 리아 2000’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빌바오시는 제련소와 조선업체는 외곽으로 옮기고 네르비온 강변의 부두 길을 3킬로미터 산책길과 1.2km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50년대 철수한 트램을 다시 운행했다. 주민이 30분 내에 시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철을 확충했다.

한편 빌바오시가 1988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어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은 폭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시는 주민의 95%가 반대한 구겐하임 미술관 사업을 완공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미술관 건립을 강행했다.

결국 프랑코 게리가 총괄 건축가로 나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었는데, 이윽고 3만여장의 은빛 티타늄 패널이 날씨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빛을 반사하는 시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구겐하임 박물관을 탄생시켰다.

빌바오시는 이처럼 공공·민간 부문이 힘을 합쳐서 도시를 다시 살려냈다. 그 중심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고 도시재생을 위한 결정적인 한방이었던 이 건물은 현재 빌바오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건축물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빌바오시는 전통제조업 비중을 더 낮추고 고용, 국내총생산, 교육, 노인복지, 건강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 5대 도시를 꿈꾸고 있다.

4. 베를린과 도시숲·공유이동수단·심플한 옥외광고

숲은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1ha의 숲은 168kg의 대기오염을 흡수하는데 이것은 경유차의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과 맞먹는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생활권역 도시 숲 비율을 보면 베를린 27.9m², 영국 런던 27.0m², 베이징 8.7m², 서울이 5.3m²이며 베를린 등 유럽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 전승기념관으로 가는 길에 접한 티어가르덴은 탄성을 자아냈다. 밀림에 가까운 녹지와 산책로가 펼쳐진 이곳은 도심 지척에서 쾌적함을 선사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공해의 도시 울산에 기후 변화에 대비해 티어가르덴과 같이 생활권역 도시 숲 조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출장 소감 및 정책 제언

1. 심플한 옥외광고물로 도시 이미지 제고

열흘간 약 20만 걸음을 걷고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이동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은 거리의 광고판이었다. 이곳 도시들에서는 버스정류소 벽면을 이용한 광고판, 회전하는 광고판 등 옥외광고판 자체가 도심 미관의 한 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천편일률적인 우리의 간판 위주 형형색색 광고판과 달리, 아예 심플하게 디자인돼 있었고, 디지털 미디어비전을 활용한 최신 광고 화면 역시 크게 튀지 않고 심플한 느낌이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디자인을 고려한 심사 등이 펼쳐지고 있을 것인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 실무 공무원들도 보다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확장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는 지양하는 대신 심플하면서도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다 강렬하게 전할 수 있는 광고 디자인을 도입, 활용한다면 우리 구 전체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버스 정류장의 광고판도 보다 재미있고 아름다운,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옥외광고판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세계의 광고판'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세계의 시선을 받고 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인구 유입과 함께 급격히 성장을 거듭하면서 신홍 주거지역은 물론, 도시 재생에도 큰 공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광고물에 있어서도 통일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 도시에 활력을 더 붙여넣을 수 있을 것이다.

2. 공유 이동수단, 뒤처지지 않게 준비해야

각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어김없이 눈에 띄는 이동 수단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였다.

거리 곳곳에 배치돼 다음 이동 수요를 기다리는 이동수단들은 정해진 주인 없이 누구나 빌려 탈 수 있도록 마련된 공유 상품들이었다.

굳이 목돈을 들여 내 것을 사지 않아도, 거리 곳곳에 빌려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속된 표현으로 널리 있는데 이미 도입 초장기를 넘어 정착기에 들었는지 현지인들은 이를 대단히 자연스럽게 타고 다니고 있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이 때, 전기를 활용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이런 공유 상품들이 앞으로 대중 이동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카카오택시와 같은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선호도와 활용도 또한 높다고 하니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공유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짧게는 안전한 이동로 확보, 길게 봐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일명 ‘공유경제 로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고려되길 바란다.

특히 우리 구는 현재 동과 서를 길게 가르고 있는 기존 동해남부선의 폐선 부지가 있기에 이를 활용해 남에서 북으로 자전거나 킥보드, 그리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다. 끝.

작성자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제 목	도시재생은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p>○ 당면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우수사례 지역과 관련기관의 방문을 통해 현지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도시 재탄생을 위해 공무원외 출장을 실시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점을 간략히 적어본다.</p> <p>○ 먼저 바르셀로나의 중심부 고딱지구는 구시가지 일대가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고 거리의 풍경과 경관을 개선함으로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었다.</p> <p>바로셀로나의 대표적 창업플랫폼 co-working은 여러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사람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말하고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탄생하고 이를 사업에 접목시켜 상품화하는데 성공 사례가 되고 있었음.</p> <p>- 카사 바트요는 재건축 붐으로 인하여 생긴 ‘부조화 지구’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개성 만점의 건물 여섯 채는 다양한 입면을 가지고 있음. 당시 이곳에는 우리로 말하자면 재건축의 붐이 한창이었던 곳으로 저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유명한 건축가를 섭외하여 가장 멋진 집을 지으려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음.</p> <p>또한, 전체가 마치 원시시대에 있었던 거대한 동물의 뼈를 심어 놓은 듯 보이는데 발코니에는 눈 부분이 숑숑 뚫인 괴물의 머리뼈가 돌출되어 있고, 2층에 튀어나온 창가엔 허벅지 뼈 같은 기둥이 흘</p>	

러내릴 것 같은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음.

아침 햇살을 받으면 건물은 온통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이 원색의 세라믹은 차가운 발코니의 돌과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 돋보임.

- **바르셀로나 마요르까** 거리에 신 고딕양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성가족 성당’은 도시생활의 정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1866년 처음 계획되어 지금까지 90년이 넘게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건축가 가우디의 모든 열정이 승화된 ‘성가족 성당’의 설계와 시공은 먼 훗날을 기약하며 당대가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대해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서기 까지 이곳은 15세기 이래 제철소와 철광석 광산과 조선소가 있던 공업도시였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철강산업과 조선업의 쇠퇴로 공장의 폐업은 늘어가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에 1991년 바스크 정부는 몰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산업이라고 판단하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계획했는데, 실직한 근로자와 시민들의 반대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빌바오 시장은 도시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로 주민들을 이해 및 설득시켰고, 결국 조선산업이 빠져나간 빈 자리에 구겐하임 미

술관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채워졌으며, 컨테이너 하차장으로 쓰이던 네르비온 강가의 땅이 문화의 요람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당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빌바오의 여행산업은 급격히 신장되었고, 공항 여행객이 1994년 140만명, 2005년에 38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연 평균 100만명에 이르고 있음.

미술관의 건립이 도시재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으며, 이후 상징문화시설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얻는 것을 빌바오 효과라 불린다.

- 베를린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창업지원센터)는 낡은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 까지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서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 곳에서 상호 토론, 정보교환, 가능성 검토, 사업계획 개발, 금융지원, 법률자문 등을 통해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마지막으로

- 선진 해외도시재생 발굴단으로 참여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명 받았으며, 특히 우리지역에도 도시재생의 물결이 부는 현재, 단순히 오래된 것을 부수고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고택과 역사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고 낡은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 또는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도시재생이야 말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

작성자	의회사무과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김규신
제 목	북구에서만 가능한 것이 있어야
<p>○ 걷고 또 걷고, 걷고 싶고 다시 걷고 싶은 바르셀로나, 빌바오, 베를린 세 곳을 8박 10일간 다녀오면서 20만보에 가까운 걸음을 걸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계속 이동했다.</p> <p>하루 평균 걸음이 2만보 수준이었는데, 당시에는 힘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자주 가기 쉽지 않은 해외 출장에서 전세버스를 빌리는 등의 예산 소요 대신 그곳 도심 곳곳을 직접 발로 누비며 선진 사례를 하나라도 더 담아가려 한 우리 구 실무진들의 판단 덕에 현장 곳곳을 보다 세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p> <p>실무진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공감해서, 시차와 음식 등으로 피로가 쌓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도 없이 묵묵히 믿고 걸음, 걸음을 옮긴 이동권 구청장님과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의 지원사격도 큰 역할을 했다.</p> <p>마침 방문한 3개 지역의 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걸음을 우선시해 조성돼 있었다. 차로가 우선이 아니라 인도가 우선시 되어 걸음을 걷는 데 장애물이 많지 않았고, 자연스레 걸음을 옮기면서 도시 곳곳을 살펴보고, 시설들의 이용이 가능했고, 걷는 것도 익숙해졌다.</p> <p>우리 구 이화정 마을이 가고자 하는 바는 ‘천년의 삶과 하천을 품은 걷고 싶은 내 고장 ’천(川)걸음 이화정마을‘이다. 걷고 싶은 고장으로 조성해 도시를 재생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제법 많은 발걸음을 옮긴 이번 벤치마킹이 이화정마을의 성공적인 재생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현재 우리가 사는 지역 곳곳은 자동차 위주의 도로망으로 인해 걷기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를 따라 인도가 있지만 매연을 뿜고 뽕뽕 달리는, 그리고 곳곳에서 신호등의 제약을 받는 걸음은 상쾌할 수가 없다.</p>	

동천강변이나, 박상진호수공원처럼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대부분 도로 옆이나 도로 자체에 들어가서 발을 옮겨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서 기회는 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를 마무리하면 발생하는 폐선 철도를 잘 활용한다면 바르셀로나 람브라스 거리 못지않은 멋진 가로수길처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효문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송정, 창평, 호계, 신천, 중산, 이화정 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발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 지역 곳곳을 시원시원하게 연결, 소통한다면 그 길 자체가 북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매우 유니크한 관광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우리 구에서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부지 곳곳을 공원화하고 길을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허무맹랑한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 우리지역에서만 체험 가능한 것을 찾아야

이화정마을과 염포, 양정, 화봉 등 우리 구 재생사업 추진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문 인구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찾는 이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구가 관광산업에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크게는 울산 북구, 작게는 이화정마을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왜 이곳을 찾아야 하는지, 이곳에서만 하거나, 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매력을 담고 있는 아이টে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대성당을 비롯해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가 곳곳에 남겨놓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빌바오는 구겐하임 박물관과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가 그들만의 매력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베를린 역시 과거 냉전시대를 전후로 흥망을 달리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함께, 장벽을 비롯한 2차 대전 전후의 아픔을 담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모두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고유의 아이템들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국내외 사례를 봐도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아이템들을 모방해 성공한 경우는 많지가 않으며, 비록 모방을 해서 성공하더라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에 우리는 울산 북구에 가야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먹을 것도 좋고, 볼 것도 좋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좋다.

베를린 장벽 조각이나 베를린 신호등 마크를 새긴 옷과 같이 베를린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기념품을 우리 북구에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코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관에서 할 필요는 없다. 베를린의 우파파브릭 같은 생태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활발하게 육성, 지원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우리만의 아이템을 발굴, 제작, 조성할 수 있다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수도 있을 것이다. 끝.